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구원의 방주 성경: 요한복음 15장 1-12절

Tag: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15:1-12)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방주는 노아의 방주처럼 심판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네모난 배를 뜻한다.

방주는 배지만 구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다. 이 지스함은 군사적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현대상선은 상업적 목적으로 낚시배는 낚시를 위해서, 어선은 고기잡이를 위해서 만든다. 그런데 방주는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다.

누구든 방주에 올라타면 구원을 얻는다. 살아남는다. 심판을 모면한다. 방주는 엔진도, 키도, 돛이나 닻도 없다. 크기도 커다란 직사각형이라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거나 뒤집히지 않는다. 사망을 살피는 창문 4개와 하늘을 향한 문만 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궁금한 것이 많다.

사람은 왜 죽을까?

사람은 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을까?

왜 악한 사람인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제 멋대로 살아도 벌을 받지 않는 걸까? (어떤 사람은)

왜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엉뚱한 법을 만들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왜 정의롭지 못할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끝낼수는 없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날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최후의 심판에서 모두 청산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은 아니다. 여전히 선과 악의 대결이 지속될 것이지만, 중국에는 선이 이긴다.

물론 옳고 설친 생사회복의 여정과 심판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리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섭리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말세에 믿음이 식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말이다.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18:8)

(이단들은 누가복음 18장8절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믿는자를 보겠느냐로 바꾸어 가르치고, 성도가 많은 기성교회의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같이 진짜 믿음이 있는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세에 불법이 성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과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뜻이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문맥상 의미는 불법이 성하여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교회가 방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포도나무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포도나무의 줄기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 가꾸어 주신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제거하기도 하시고, 열매가 있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교회생활을 잘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경건생활을 잘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첫째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에 그 댓가를 치루게 된다.)

셋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을 통해서 남겨진 형벌이 집행된다.

넷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상처와 억울함이 너무 커서 보복적 죄를 짓기 때문이다. (죄의 악순환)

다섯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가?

1. 우선 죄를 뉘우치고 씻어야 한다. 자신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야 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세속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 이어서 회개할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은 세속적인 환경에서 태어난다.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

2. 다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씻었다 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금 죄로 물들게 된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원리와 같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생활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설교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진다.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지고 그래서 깨끗해진다.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도 곧,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다.

(말씀을 받아도 열매가 없다면, 율법주의를 의심해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신령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성령의 열매)

7절;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앞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열매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 중에서 형통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검증코드로서의 사랑. (9~12)

-저 사람이 세속적으로도 열매가 많은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열매인가?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잘살게 되었나?

-검증코드가 곧 사랑이다.

-자기 자신의 검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기울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가이다. 내가 여전히 교회와 식구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비록 말씀요, 불법이 성하고, 믿음의 기도가 적고, 배신이 성하고, 사랑이 식었지만, 내가 구원받게 될 성도라는 확신이 생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 로마서 12장 21절

Tag: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21)

선으로 악을 이기라

1. 번성하여 살아남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심. 2명 이상 낳아야 현상 유지. 4명 낳아서 모두 전도하면 그 사람은 상이 크다. 잘 키우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라.

-대기업에 입사하고, 공무원되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치러 다녀야 겠다는 인생계획 포기하라. 아무런 의미 없다.

-4명 낳아 잘 기르고, 모두 우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키우겠다고 인생 목표를 삼으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도 없고, 이 보다 더 큰 보람도 없고, 이 보다 더 큰 보장도 없다.

2. 선과 악에 대한 기본 개념 파악하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건설과 파괴? No. 생명이 파괴를 이긴다.

-약과 독? No. 밀도에 따라 약이 곧 독이다.

-유익과 유해. 해도 필요하다. 부패는 빠른 소멸을 위한 장치다.

-계명과 불법. 위협의 방지와 경계의 목적. 사랑의 법이 이긴다.

-하나님과 마귀. 결국 선과 악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대속과 회개, 대속과 회개는 심판자와 죄인의 셈법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셈법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아버지가 곧 구원의 핵심이다.

3. 선이 악보다 더 강한 이유

-선+생명은 어떤 악보다 더 강하다.

4. 심판이 있다-악에 대한 정의실현이다.